

# ‘막힌 바닷길’... 생산비 증가·수출입 거래도 차질

## ‘중동 쇼크’ 광주·전남 산업계 비상

###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유가·환율 급등 우려 정부·기관 등 직·간접 타격 대비 긴급대응반 가동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중동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국제 유가 급등에 이어 해상 물류 불안까지 현실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산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단기간에 봉합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지역 수출과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이란의 호르무

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주·전남의 제조업·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로, 글로벌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과 보험료 인상, 선박 운임 상승 등 연쇄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가전,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업종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 상승이 곧바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의 경우, 주요 생산 품목인 자동차, 냉장고 등 가전제품 품목이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이 곧바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출 품목의 부피가 커 해상 운임 비중이 높아 해상 운송 차질이나 보험료 인상, 운임 상승 등이 겹칠 경우 수출 일정 지연과 물류비 부담 확대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남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수 국가산단을 지탱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와 나프타 등 기초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중동 지역 공급 차질은 곧바로 생산 차질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마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 둔화 국면과 맞물릴 경우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중소 수출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가격 전가 여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 변동성 확대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수입 원자재 비

용이 증가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산업 및 경제계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하고 긴급 가동에 나섰다.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이 국내 물가와 생산원가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대폭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원유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를 인하여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수급 계획을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상황 관련 중소

·벤처기업 피해 대응 TF’를 출범시키고, 광주·전남 등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실시간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해상 운임 상승분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 내 국제운송비 한도를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체 물류망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길 기대하지만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무역협회는 정부와 협력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상의 함평군수, 임완주 금호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등이 3일 빛그린산단 내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 전남도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에 행정력 집중”

### 강위원 경제부지사, 현장서 간담회...지원 방안 등 논의

금호타이어와 전남도가 차질 없는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상의 함평군수, 임완주 금호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등은 빛그린산단 내 함평공장 건설 부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은 광주·전남권의 미래 산업 지평을 바꿀 핵심 프로젝트”라며 “함평 신공장이 차질 없이 완공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광주·전남의 미래차 산업을 이끌 전략

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부으겠다”고 말했다.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공장동이 올해 하반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일정 등 많이 도와 달라”고 밝혔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함평 공장은 내년에 일부가 가동되고 나머지는 28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초정밀 타이어를 생산해 금호타이어의 대도약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 1단계 건설 사업은 총 6609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4월 타이어 제조 핵심시설인 정련동과 압연동 착공을 앞두고 있다.

완공 후 함평 신공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자동차 설비와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춘 연간 530만본 규모의 타이어 생산기지로 운영된다.

또 관련 소재·부품기업의 연쇄 투자를 촉진해 전남 서부권을 대표하는 핵심 엔지니어링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중장기적으로 2단계 투자를 통해 공장 전면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이 완료되면 생산공정 통합과 물류 효율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광주·전남 대통합 시대를 맞아 광주의 완성차 제조 역량과 전남의 소재·부품 공급망을 연계하는 ‘초광역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국내 상 휩쓴 아이오닉9, 특별 프로모션

현대차가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9의 ‘국내 자동차상 3관왕’ 달성을 기념해 전기차(EV)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이오닉9는 최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등 3개 기관이 수여하는 ‘올해의 차’에서 모두 석권했다.

현대차는 3월 계약 후 오는 4월 내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오닉5·6·9, 코나 일렉트릭 등 승용 전기차에 100만원 할인 혜택을, 포터 일렉트릭, ST1(사시캠 제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을 이용 등 소형화물 전기차에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15일까지 매일 최대 1040만원 상당의 차량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고객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https://www.hyundai.com)의 톨렛 이벤트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1등 300만원 할인쿠폰(매일 1명), 2등 100만원 할인쿠폰(매일 5명), 3등 10만원 할인쿠폰(매일 24명)을 제공한다.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차량 관리를 지원하는 스

트레스 프리(STRESS-FREE) 패키지를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으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을 3월 중 출고받는 고객은 바디케어 서비스(차체 수리비/부품 교체비 120만원 한도, 부위별 1회씩 총 3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총 3회, 회당 50만원 한도)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현대캐피탈 할부·렌트·리스를 통해 현대 승용 전기차 또는 넥쏘를 이용 중인 고객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을 활용해 대상 차량을 할부로 재구매하고 3월 내 출고되는 경우 기존 대비 0.5%p 낮은 2.3%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장승기 기자

## 삼성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신제품 출시

### 의류 주름 제거·탈취·살균까지...AI 기능 고도화

삼성전자는 주름 제거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능이 강화된 2026년형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를 3일 출시했다.

신제품은 기존 대비 바람 세기를 2배 강화하고 고온 스팀을 적용한 ‘주름집중케어’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제품에 옷을 걸어 두기만 해도 기존 대비 2배 강력해진 바람과 고온 스팀으로 말끔하게 다림질하고 의류에 밴 끈적한 냄새도 탈취한다.

사용자는 외출 전이나 바쁜 아침에도 구겨진 옷을 간편하고 빠르게 마치 새 옷처럼 깔끔하게 관리해 바로 입고 나갈 수 있다.

또 강력한 바람으로 의류 안팎의 먼지와 오염물질을 털어내는 ‘듀얼에어워시’, 고

온 스팀으로 살균과 탈취 및 주름 제거를 동시에 수행하는 ‘듀얼제트스팀’을 제공해 의류를 늘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업그레이드된 ‘AI 맞춤건조’ 코스를 지원한다. 습도 센서를 통해 건조 동작 중 습도를 세밀하게 측정해 최적의 건조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한다.

스마트싱스를 통해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고 ‘AI 맞춤건조’ 코스를 선택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15% 줄일 수 있다.

또 신제품은 분할 없이 매끈하게 이어지는 일체형 도어 디자인이 적용됐다. 옷장과 비슷한 595mm 깊이로 설계됐고, 바람을 이용해 의류를 관리하는 저진동·저소음



방식이기 때문에 옷장 빌트인 인테리어를 구현하는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도어 전면에는 2.8형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심미성과 조작 편의성을 모두 높였고, 기존 대비 디스플레이 위치를 높여 성인 사용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편하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옷을 거는 ‘에어행어’를 슬림한 형태로 개선하고, 튼튼한 내부 선반과 한층 밝아진 내부 조명을 적용하는 등 디테일을 업그레이드해 사용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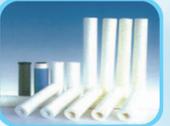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2번로 11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